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 인권전문가 1500명 참석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전 세계 인권전문가들이 광주에 모여 전쟁과 폭력에 맞서는 ‘평화와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이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이 포럼은 광주광역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네스코(UNESCO),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며, 세계 각국의 인권전문가 등 1500명이 참석한다. 올해 포럼은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이날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내고, 맨손으로 총구를 움켜쥐며 가장 위험적인 내란세력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막아냈다”며 “12·3 비상계엄을 이겨낸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45년 전 5·18의 유산이다. 수많은 이들이 과거의 광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말하는 이유이고,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존재한 보통명사 광주가 된 이유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전쟁과 폭력으로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사랑, 희망, 기쁨이 있다”며 “그 어떤 전쟁과 폭력도 반대하며, 평화와 혁명을 함께하는 전 세계 인권도시들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더 이상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일이 없도록 지구촌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함께 나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승 우석대학교 석좌교수는 ‘저항의 도시로 우뚝 서는 광주’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서 교수는 1980년 5월 신군부

인권평화운동가 서승 교수 ‘저항의 도시로 우뚝 서는 광주’ 기조강연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교수 ‘반평화적 상황과 인권공동체 미래’ 발표



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의 분노와 저항을 조명하며 “광주는 인류사에 ‘권력에 저항한 도시’로 오려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이어 “모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화해 정신까지 모두 5·18정신이 아우르고 있으며, 세계인권도시선언까지 한 광주는 세계인권의 정수를 총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반평화적 상황과 인권공동체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인권, 생태, 평화의 접점을 짚으며 생물다양성과 인권이 교차하는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신형식 (사)국민주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로, 이대훈 (사)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 제임스 허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크리스토프 호이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 파르하나 빈테 지가르 파리나 방글라데시 민주주의학생위원회 중앙위원회 조직위원 등이 평화 구축 연대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밖에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 회의, 국제인권연수 등을 통해 다양한 인권 쟁점을 다룬다.

주제회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어린이·청소년 ▲장애 ▲이주 ▲여성 ▲마을과 인권 ▲지구촌 반폭력 등 7개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별회의에서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을 기념해 국가폭력 등 다양한 폭력에 저항해 온 항쟁도시 사례를 공유한다. 또 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APCAD) 회의, 인권논문 발표 등이 이어진다.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16일 오후 1시30분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필독서로서 선정된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의 저자 차인표 작가의 북토크콘서트가 열린다. 17일 오전 10시에는 ‘이영미의 평화발상’의 저자 이영미 작가의 원데이 클래스 ‘모두를 위한 평화발상’이 진행된다.

신청 및 세부 일정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www.whrc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도일 기자



광주 남구, 행복한 나라 ‘투표로 응원’

대선 참여 독려 컬러링·쇼츠 영상 릴레이 제작

“투표는 권리입니다. 나와 가족, 더 붙여 나라를 위해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세요.”

광주 남구는 대한민국 일꾼을 뽑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원인 응대 전화 신호 음성엔 투표 참여를 안내하는 컬러링과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소중한 권리 행사를 독려하고 있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내에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다각적인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

남구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대선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남구는 구청 앞 미디어월을 활용해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가 직접 뽑는 것을 안내하는 홍보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다.

또 선거일 전까지 관내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투표 독려 문자를 3차례 발송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주월동 빅스포 뒤편 푸른길 공원 산책로를 비롯해 3곳에 투표 참여 포토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구청 본청 및 17개동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전화에 선거 일정과 참여를 안내하는 컬러링을 제공하며, 교통 불편 지역인 대촌동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선관위에서 지원하는 편의 차량도 제공한다. 더불어 구청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투표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구청 직원들이 출연하는 쇼츠 영상 3편을 제작해 릴레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관내 17개동 자생단체를 비롯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지역사회 주민들도 투표 참여 독려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임채일 기자

‘세계 금연의 날’ 금연·절주 합동 캠페인

살레시오여고와 함께 ‘학교 30m 이내 금연구역’ 홍보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지난 14일 살레시오 여자고등학교 일대에서 금연·절주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학교 주변에서 흡연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해 실시하게 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살레시오여고 학생 및 교사, 광주금연지원센터, 금연지도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살레시오여고 학생들은 거리에

나서 ‘초·중·고 금연구역 확대(30m)’를 알리는 피켓 등을 활용해 확대된 금연구역과 청소년 전자담배와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 알렸다.

이어 학교 주변에서의 심각한 담배꽂초 투기 근절과 환경 개선을 위한 담배꽂초 줄임 캠페인도 함께 추진했고 금연지도원은 현장 흡연 계도 활동도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절주와 금연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깨끗한 금연 환경 조성 및 절주 문화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서구, 5·18주먹밥과 함께 투표참여 독려

나눔과 연대 공동체정신과 투표 참여 의미 되새겨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서구청 구내식당에서 ‘5·18주먹밥’ 특별식을 제공하며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구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함께 펼치는 ‘참여 민주주의’의 의미를 공직자들과 공유했다.

서구는 이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찾은 직원들을 위해 총 350인분의 ‘5·18주먹밥’을 준비했다. 여기에 “변화는 투표로! 6월3일 멋지게 한 표로”라는 문구가 새겨진 음료를 함께 제공하며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했다.

전영채 행정재정국장은 “우리 광주가 1980년 5월,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2025년 6월에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적극적인 투표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 ‘주먹밥 정신’을 도시브랜드인 ‘착한도시 서구’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서구청 직원들과 양동전통시장 상인들이 함께 손잡고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주민들을 위해 ‘5·18주먹밥’ 500인분을 정성껏 만들어 현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박석우 기자

북구, ‘따뜻한 주거복지 포인트’ 사업 협약 체결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LH광주전남지역본부 및 문화선협과 맞손을 잡는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북구청에서 문인 북구청장, 유병용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 고영철 문화선협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주거복지 포인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LH 주공아파트 내 조성된 작은도서관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삼아 독거 세대를 포함한 입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주민에게 100~200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매월 최대 1만 원까지 관리비에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문화

선협(200만 원)과 LH광주전남본부(100만 원)에서 기탁한 기부금으로 마련됐으며 이는 입주민들이 적립한 포인트로 할인받은 관리비를 보전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북구는 작은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해 입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관리비 절감 혜택이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이번 사업에 가까이 협조해주신 유병용 본부장님과 고영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